

노인간호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의 비교 연구

문숙자¹, 이지혜^{2*}

¹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Care Attitude and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before and after Geriatric Nursing Practice

Suk-Ja Moon¹, Ji-Hye Lee^{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Ul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노인간호실습이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간호대학생 59명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 노인간호실습 전후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노인간호실습 전에 비하여 노인간호실습 후에 대상자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가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노인간호실습, 노인돌봄태도, 치매, 의사소통

Abstract This study i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geriatric nursing practice on elderly care attitude and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of student nurse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8.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59 student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and paired t-test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elderly care attitude and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geriatric nursing practice compared to before the geriatric nursing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composition of the practice curriculum for student nurses to improve their competence as nurses in the future.

Key Words : Student nurses, Geriatric Nursing Practice, Elderly care attitude, Dementia, Communic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함께 만성질환자 및 노인성 치매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노인 치매대상자는 2016년 68만 명이었으나 2024년 100만 명, 2041년에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5천명 중 54.3

%인 236천명이 치매대상자로 보고되었고 중고도 치매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돌보고 있다. 앞으로 치매유병률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거주하는 노인 및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수요 및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2].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관련 기관의 간호사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3]에서 간호사는

*Corresponding Author : Jihye Lee(jhlee6@uc.ac.kr)

Received June 4,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July 5,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2009년 6,684명이 소요되었고 2025년에는 13,836명, 2030년에 16,764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4]. 하지만 간호대학 뿐 아니라 대학원에 치매관련 교육과정이나 치매전문간호사 과정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치매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5]. 그러므로 예비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들이 노인 및 치매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해 볼 수 있는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6].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은 노인간호를 위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자주 접하지 못했던 노인 및 치매대상자와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노인간호학은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학점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7].

이전 연구에서 노인간호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들[8,9]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간호실습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변화를 확인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실습이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노인간호실습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실습 전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노인돌봄태도 및 치매의 의사소통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간호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 및 치매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2. 선행연구

2.1 노인간호실습

현재 노인간호학 실습교과목은 주로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노인간호실습을 통해 노인간호 관련 전문 지식과 실제적인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10]. 또한 치매교육프로그램, 노인간호실습 등은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3]. 간호대학생의 노인실습 경험에 대한 이전 연구[14]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은 노인실습을 통해 피하고 싶던 노인들의 따뜻한 정과 순수성을 알게 되면서 노인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노인을 잘 돌보기 위한 학습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치매대상자와 의사소통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간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간호실습은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에 대한 태도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에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2 노인돌봄태도

노인돌봄태도란 노인돌봄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15]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이나 마음가짐[16]이다. 또한 노인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행위이다[17].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 환경과 간호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1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를 돌보기 전 노인돌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노인돌봄태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2.3. 치매대상자를 위한 의사소통행위

치매대상자를 위한 의사소통행위란 치매대상자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 정도와 요구를 사정하면서 의사소통할 때 보여지는 행위 또

는 전략이다[19-22]. 이러한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는 치매대상자를 이해하고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2]. 하지만 치매대상자는 기억장애 뿐 만 아니라 실어증, 실인증, 실행증 등을 경험하면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정신심리행동증상을 보이게 된다[23]. 이러한 증상들은 치매대상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2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학부과정부터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배우고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실습 전후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3.2 연구대상자, 연구기간

대상자 수 산정은 노인간호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7]의 결과를 참고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G power 3.1.2 program을 활용하여 단일군 전후설계, 효과크기 0.4, 검정력 80%, 유의수준 .05(양측검정)로 정하였을 때 대상자수는 41명 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59명으로 표본크기는 충분한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는 U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노인 및 치매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노인간호실습을 진행한 4학년 학생 중 59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다른 노인 및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3.3 연구도구

3.3.1 노인돌봄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인돌봄태도 측정도구는 Sanders 등[25]의 노화의미분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6]의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척도를 활용하여 간호사들과의 면담과 내용타당도를 통해 Kim [16]이 개발한 것이

다.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20~14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8이었다.

3.3.2 치매의사소통행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는 Lee & Gang [22]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대화반응관리, 관계조절, 정서표현, 이해증진 4요인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 Ga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9이었다.

3.4 연구진행절차

3.4.1 사전조사

노인간호실습 첫날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 노인돌봄태도, 치매의사소통행위 정도를 측정하였다.

3.4.2 노인간호실습

노인간호실습은 5일, 총 45시간 진행되었다. 노인간호실습을 위한 기관은 U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기관으로 노인 및 치매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이었다. 실습 1일차에 기관의 소개, 노화에 따른 신체, 생리적 변화와 노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 파악, 2일차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3일차에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분석이 이루어졌다. 4, 5일차에는 노인대상자의 노인포괄평가 수행이 이루어졌으며 실습하는 전 기간에 걸쳐 노인대상자에게 행해지는 위생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안전간호, 감염관리 및 임종간호를 관찰하거나 수행하였다.

3.4.3 사후조사

실습을 종료한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 노인돌봄태도, 치매의사소통행위 정도를 측정하였다.

3.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되며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태일지라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가보고식으로 완료된 설문지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3.6 자료분석방법

통계 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노인간호실습 전후 두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3명(89.8%), 남성이 6명(10.2%)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3.44세 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3명(72.9%)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과 함께 거주한 경우는 13명(22.0%) 이었고 치매대상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는 1명(1.7%) 이었다.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41명(69.5%)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M±SD
Gender	Male	6(10.2)
	Female	53(89.8)
Age(year)		23.44±1.88
Religion	Protestant	7(11.9)
	Catholic	4(6.8)
	Buddhist	5(8.5)
	Others	0(0.0)
	None	43(72.9)
Experience living together with the elderly person	Yes	13(22.0)
	No	46(78.0)
Experience living together with the demented person	Yes	1(1.7)
	No	58(98.3)
Education experience about communication with the demented person	Yes	41(69.5)
	No	18(30.5)

4.2 사전과 사후 변수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노인간호실습 전 노인돌봄태도는 1.65±0.39점 이었으나 실습 후 1.95±0.38점이 상승되어 1.95±0.37점이었(t=5.96, p<.001).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점수는 실습 전 3.78±0.36점이었고 실습 후 4.16±0.48점이 상승하여 4.16±0.48점으로 확인되었다(t=7.42, p<.001). 노인간호실습 전에 비하여 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 의사소통행위는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Table 2.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N=59)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Elderly Care Attitude	1.65±0.39	1.95±0.37	0.29±0.38	5.96	<.001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of student nurses	3.78±0.36	4.16±0.48	0.39±0.40	7.42	<.001

5. 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성 치매유병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및 치매대상자를 돌보기 위한 간호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및 치매교육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에 대한 태도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대상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간호실습이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간호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는 실습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습 후 노인돌봄태도를 평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노인간호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노인간호실습을 통해 노인관련 인식이 변화되고 노인돌봄에 대해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결과[14]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노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13%, 치매대상자와 함께 거주해본 경험이 있

는 경우는 1.7%이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와 생활해 본 경험이 드물어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9]에 의하면 노인돌봄태도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을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간호대학생들이 노인간호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점수는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했던 연구[22]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점수는 3.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상회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실습 과정 중 적은 수의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현장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 수준에 맞추면서 대상자와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업무가 과도하여 노인 및 치매대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27]이라는 의견과 일치한다. 또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조차도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2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노인간호실습, 치매교육 등을 통해 노인 및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노인간호실습 과정 중 노인 및 치매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관찰할 뿐 아니라 대상자와 다양하게 접촉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를 제공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제적인 지식과 실습을 토대로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습득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치매에 대한 태도 변화는 쉽지 않지만 치매관련 실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8], 이러한 변화는 노인돌봄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맞춰 점차 노인 및 치매대상자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노인 및 치매대상자와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는 노인돌봄태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생들의 바람직한 노인돌봄태도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위해 대상자 간호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노인간호실습이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생 중 59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에서 노인간호실습을 적용하여 노인돌봄태도와 치매대상자 의사소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노인간호실습 후 노인돌봄태도 ($t=5.96, p<.000$)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t=7.42, p<.000$)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노인 및 치매대상자 간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노인돌봄태도와 치매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entral Dementia Center. (2020). Korean Dementia observatory. Name of Web Site.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21
- [2] H. Y. Kang, M. J. Chae, H. S. Seo & K. M. Yang. (2013).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69-77. DOI: 10.5977/jkasne.2013.19.1.69
- [3] M. S. Park & S. M. Kang. (2010). Demand prospect of professional workers in execution of the elderly's long-term care insurance-nurse, Social Welfare, care probation professional worker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7(3), 423-440.
- [4] J. Baumbusch, S. Dahlke & A. Phinney. (2014). Clinical instructors' knowledge and perceptions about nursing care of older people: A pilot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4(4), 434-440. DOI: 10.1016/j.nepr.2014.03.001
- [5] Y. R. Cheon. (2018).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Nurses and Nurse Assitants for long-term care Hospital and Survey on the*

- Educational Need Degree of Nursing for the Elderl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Seoul.
- [6] M. Waldner & J. Olson. (2007).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3(1), 1-14.
- [7] K. B. Choi. (2012). The effect of elderly nursing care education programs on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nursing performance toward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522-532. DOI: 10.5977/jkasne.2012.18.3.522
- [8] S. J. Park, K. S. Park & Y. J. Kim. (2015).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467-4477. DOI: 10.5762/KAIS.2015.16.7.4467
- [9] H. J. Kim. (2016).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2), 213-222. DOI: 10.5392/JKCA.2016.16.12.213
- [10] M. S. Song. (2008). A study of nursing student needs in a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0(2), 121-130.
- [11] Y. S. Kim & J. Y. Kim. (2014). The effect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by action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1), 6527-6535. DOI: 10.5762/KAIS.2014.15.11.6527
- [12]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13] L. C. Marshal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teamwork, effort and patient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2003.
- [14] J. Kim. (2016).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at Elderly Care Facilities, 17(1), 11-21.
- [15] K. Y. Ok. (2009).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Care of the Elderly*.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Jinju.
- [16] K. I. Park, J. A. Kwon & J. K. Kim. (2014). Influence the elderly caregivers' conflict and care attitudes in elderly nursing home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round of job stress's mediating effect. *J WelF Aged*, 63, 149-173.
- [17] H. Y. Joung & H. J. Hyun. (2012). The effects of senior simul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facilities employees' attitudes for elderly care, understanding of the age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2), 222-230.
- [18] P. M. Burbank, G. J. Burkholder & J. Dugas. (2018). Development of the Perspectives on Caring for Older Patients scale: Psychometric analyses. *Applied Nursing Research*, 43, 98-104. DOI: 10.1016/j.apnr.2018.07.002
- [19] C. Gallois & H. Giles. (2015).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1-18.
- [20] T. Kuraleva. (2014). *Communicative behavior: Constants and variables*. Young Scientist USA. Humanities. Auburn (WA): Lulu Press, 189-195.
- [21] T. Ryan, C. Gardiner, G. Bellamy, M. Gott & C. Ingleton. (2012).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receipt of palliative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views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Palliative Medicine*, 26(7), 879-886. DOI: 10.1177/0269216311423443
- [22] J. Lee & M. Gang.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1-13. DOI: 10.4040/jkan.2019.49.1.1
- [23] J. Cerejeira, L. Lagarto & E. Mukaetova-Ladinska. (2012).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Frontiers in Neurology*, 3(73). DOI: 10.3389/fneur.2012.00073
- [24] M. Yi & B. S. Yih. (2006). A conversation analysis of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with dementia and their profession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7), 1253-1264. DOI: 10.4040/jkan.2006.36.7.1253
- [25]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 C. Balkwell.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26] A. J. Maxwell & N. Sullivan. (1980).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Am Geriatric Society*, 28, 341-345.

- [27] S. E. Stans, R. Dalemans, L. de Witte & A. Beurskens. (2013). Challenges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communication vulnerable' people and their social environment: an exploratory qualitative stud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92(3), 302-312.

문 숙 자(Suk-Ja Moon)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현재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전문직업적 용기, 심혈관 질환자, 교수학습법
- E-Mail : msj@masan.ac.kr

이 지 혜(Ji-Hye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의사소통
- E-Mail : jhlee6@uc.ac.kr